

기고

### 아는 만큼 마음이 간다

문귀숙 국립5·18민주묘지 안내팀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까지 6개월이 지났다. 군사원호청으로 1961년 출발해,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하고, 62년 만에 부모 승격했다. 부모의 승격은 좋은 일이다. 국가유공자들의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국가유공자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나는 어렸을 때 상이군인들을 자주 봤다. 그분들은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었다. 화를 자주 냈고 험한 말을 해서 무서웠다. 국가를 위해 소중한 것을 바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통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었기에 분노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울분을 쏟아냈다. 어른이 되면서 이해했고 어떤 분야에서든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기심이 팽배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이어지고 있다. 그 가치는 소중하다.

누구나 생은 일회여서 절대적이다. 나는 그 소중한 생과 미래를 받쳐 헌신하신 분들의, 신념과 용기의 개인 서사와 역사를 알리는 일을 하는 안내원이다.

한 인간의 행위가 국가라는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후 그 개인의 삶은 어떠했는지 설명한다. 가끔은 나라를 사랑한 댓가로 치르는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아는 만큼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만큼 그분들에 대한 예우의 당연함을 인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에는 열 두곳의 국립묘지가 있다. 현충원 두곳, 호국원 여섯 곳, 민주묘지 세 곳, 그리고 대구에 신암선열 공원이다. 국립5·18민주묘지 만났던 스페인 관광객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국립묘지와 대한민국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훌륭하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민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자들이.'라고 했다. 민주화 운동을 국가의 변화를 위한 헌신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이 훌륭하다는 것이었다.

보훈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댓가를 국가가 지급하는 일이고 현재는 많이 부족하다. 선진국 일수록 보훈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이 성숙하고 국민들의 인식 또한 그렇다. 유공자들은 자긍심을 갖고 국민은 존경심을 갖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들은 부 승격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실까, 그분들의 자존감 격도 승격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혹시나 기관의 크기확대나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기를 보훈부의 맨 끝자리에서나마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

연말이다. 곧 보훈부에서 새 달력이 나오면 우리는 달력을 나누며 국가유공자와 유공자가족, 시민들을 만난다. 지난해 달력을 하나만 더 달라며 '나도 유공자여.' 조금 수줍게 말씀하시는 어른에게 엄지를 척 세워보였고 좋아하셨다. 추운 계절이다. 계절의 추위보다 더한, 상대적 추위를 느끼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

칼럼

### 한 해의 삶을 끝내는 마음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계묘(癸卯)년 한해가 끝나는 12월이 저물어 가고 있다. 한 해 동안 지난 날들은 돌이킬 수 없는 추억 속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사라졌다. 삶의 시작은 출생이고 끝은 죽음이다. 살아 있는 생물들은 시한부로 살다가 끝을 맺는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다 죽지만 하루 동안이 일생이고 하루 일생에 할 일은 다 마치고 죽으면서 종족 보존에 대한 일도 마치고 하루 일생에 할 일을 반성하면서 생을 마친다.

식물도 한해살이 1년 초 식물이 있으며 한 해 동안 시한부로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종족 보존에 대한 일을 마치고 끝을 맺는 식물이 있고, 다년생 식물은 여러 해를 살면서 열매를 맺고 종족을 보존하면서 살지만 다년생 식물의 끝은 예측할 수 없이 한 해를 보내면서 사는 것이다. 동물들은 여러해살이 동물이 많으며 사람도 여러해살이 동물 중의 하나다.

한 해를 보내면 또 한 해를 맞이하고 더욱 바람직한 변화를 하면서 살아가 불확실한 삶의 미래 시점에서 끝을 맺는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한해살이 생물들은 1년 안에 삶이 끝난다. 여러해살이 생물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맞이하면서 산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한해살이 삶을 하려고 맞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해를 끝내는 12월은 짧은 한 생을 마감 짓는다고 생각하고 보람 있는 마감이 되고 후회 없는 마감이 되어야 한다.

한 해의 삶을 마치고 빈손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끝맺음한다고 할 때 할 일이 많다. 첫째는 1년 동안 남에게 갚을 빚이 있다면 용서로 빚 갚음을 받아야 하고, 내가 못 받은 빚이 있다면 용서로 빚 갚음을 주고 마음속에 화해와 용서로 빚 갚음을 끝내야 한다. 다음은 빈손이 되려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물질적인 것은 요구하는 사람을 찾아 주면서 버려야 하고, 1년 동안의 생을 돌이켜 보고 정신적인 면에서 버려야 할 것

을 찾아 버려야 한다. 세상을 보는 부정적 생각을 버려야 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생각을 버려야 하고, 일을 미루고 남에게 의지하려 했던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 해의 삶을 마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지만 내 마음의 큰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한 해를 마쳐야 한다.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소식이 끊겼던 친지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전화 메일을 보내야 한다. 보람 있는 나의 한 해의 삶이 벽돌 한장 한장 쌓아 건축물이 되듯이 나의 보람된 한 해가 모여 내 일생이 되게 해야 한다.

12월을 보은 감사의 달이라고 한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은혜, 이웃과 친지들로부터 은혜, 국가로부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보답에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심적으로라도 보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 해를 보내야 한다. 내가 빈손이라 생각할 때 지나친 과거의 욕심은 부질없는 짓이었음을 느끼면서 가진 것을 요구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끝맺음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끝맺음은 정리 정돈이다. 정리 정돈이란 질서를 찾아 정리하는 것인데 있어야 할 것들의 제자리 찾기와 있어야 할 물건들의 제자리 찾기와 한 해 동안 사용했던 물건들은 최적의 장소에 정리하고, 1년 동안 일기를 비롯한 기록물이 있다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리해서 보람찬 나의 기록물이 되게 해야 한다. 한 해의 끝은 나를 빈손으로 만들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가진 것을 베푸는 끝맺음이 되어야 하고 화해와 용서의 끝맺음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삶에서 시작과 끝은 타원형 트랙을 달리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이어져 있다. 계묘년 한 해를 보람 있는 끝맺음을 하여, 갑진(甲辰)년 새해의 활기찬 출발 신호를 받아 달릴 수 있게 했으면 한다.

기고

### 생명의 문, 방화문을 닫아주세요

김미라 강진소방서 119 구조대장



단축시킨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발생 시 불꽃, 연기,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을 잘못 관리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 4계절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화문의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방화문은 소방시설법(제10조)에 규정된 건축법(제49조)에 따라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도나 계단, 출입구 등 연기 불꽃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문이다. 방화문은 비상구나 계단에서 탈출 방향으로 문을 밀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화염, 연기, 열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특수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방화문의 규정과 용도를 모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열어 놓거나 환기와 통행의 편리함을 위해 방화문에 맷돌을 설치하거나 벽돌 등 물건을 받혀놓은 모습을 빈번히 볼 수 있다. 방화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화재 발생 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연소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대피 시간을

2017년 제천스포츠크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단시간에 최상층부 9층까지 확산되었고, 총 6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방화문의 부재와 개방이다.

화재 시 화염이나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방화문이 없는 것과 같으며 그만큼 빠른 시간내에 위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대피시간과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생명을 지켜주는 방화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에서는 관계자의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닫힌 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윤천로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